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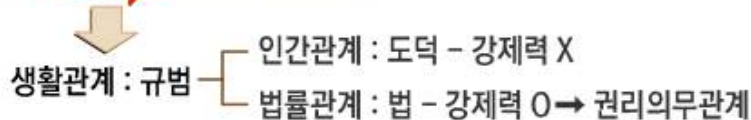
입 분 강 의

민법 및 민사특별법

민법총칙 I

1. 법률관계

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.



● 품의 분류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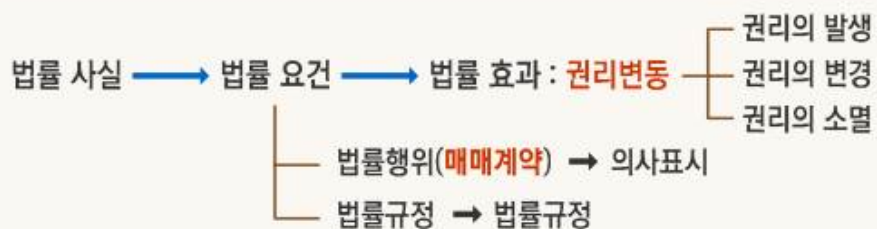
○ 법의 체계

조문 : ~하면 ~하다. 그러나 ~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요건 효과
본문(원칙)

단서(예외)

○ 민법의 체계



○ 조무과 판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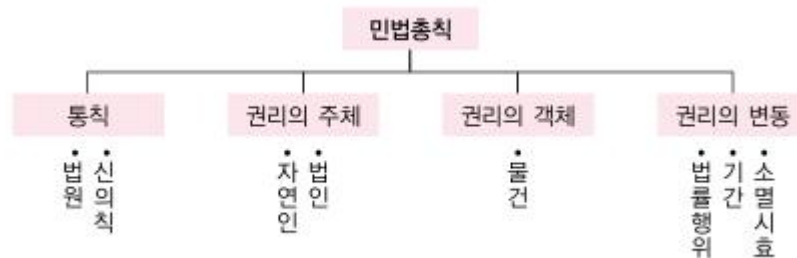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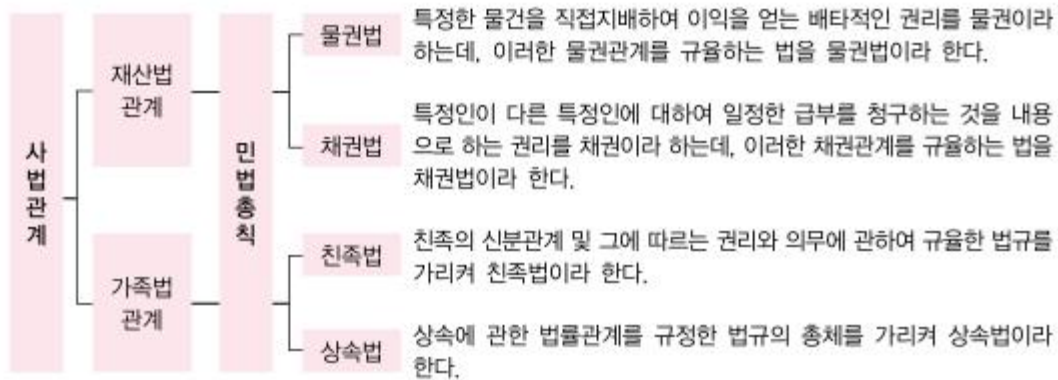
제103조 (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)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.

추상적 조문을 실생활에 적용한 것이 판례

이러한 법률행위가 반사회질서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 - 적극(= 긍정), 소극(= 부정)

Keyword

결론



※ 민법의 기초 용어

1. 유추와 준용

유추는 법해석의 한 방법이지만, 준용은 입법기술상의 방법이다.

- (1) 유추해석은 그 사안과 관련된 민법에 규정이 없을 때에 그와 가장 유사한 민법조문을 적용하는 것이다.
- (2) 준용은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적용한다는 의미로 기존의 민법 조문과 유사한 사항을 규정할 때 법률을 간결하게 할 목적으로 기존의 조문에 수정을 가하여 적용시키는 것을 말한다.

제213조 [소유물반환청구권]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.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.

제214조 [소유물방해제거, 방해예방청구권]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.

제290조 [준용규정] ① 제213조, 제214조, 제216조 내지 제244조의 규정(상권관계)은 지상권자간 또는 지상권자와 인지소유자간에 이를 준용한다.

제301조 [준용규정] 제214조의 규정은 지역권에 준용한다.

2. 선의와 악의

선의는 어떤 사정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, 악의는 이를 알고 있는 것이다.

3. 고의, 과실(귀책사유)

- (1) 고의란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그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.
- (2) 과실이란 일정한 결과 발생을 마땅히 인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인해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.
- (3) 우리 민법은 고의 또는 과실의 귀책사유가 있을 때에만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(과실책임의 원칙)

※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

제107조 [진의 아닌 의사표시] ①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.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.

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.

‘알았거나’ 는 그 사정을 안 악의인 때이고, ‘알 수 있었을 때’ 는 사회생활상 필요한 주의를 하였다면 알 수 있었던 것으로 그 사정을 모른 선의이지만 과실로 모른 경우이다.

4. 추정과 간주

추정은 반대의 증거가 제출되면 법규의 적용을 면할 수 있지만, 간주는 반대의 증거제출을 허용치 않고 법률이 정한 효력을 당연히 생기게 하는 것이다. 우리 민법은 간주조항을 ‘~으로 본다’ 라고 표현한다.

제197조 [점유의 태양] ①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,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.
②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.

4. 제3자

원칙적으로 당사자 이외의 모든 자를 가리키는 것이나, 규정에 따라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.

5. ~ 대항하지 못한다

법률행위 당사자가 제3자에 대하여 법률행위의 효력을 주장하지는 못하지만, 제3자가 그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무방한 것을 말한다.

제108조 [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] 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.
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.

※ 민법조문의 형식

1. 요건과 효과

제103조 [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]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.

제750조 [불법행위의 내용]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.

2. 원칙(본문)과 예외(단서)

제107조 [진의 아님 의사표시] ①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.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.

제112조 [제한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]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. 다만, 그 상대방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안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